

주간 전남농업

VOL. 209

2018년
11월 둘째주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병 예방은 매개충 방제부터!

주간 날씨정보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품목별 도소매 정보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전남농업기술원, 수출
유망 화훼류 안정생산
재배 길잡이 발간

정책동향

농식품부, 선제적인 김장
채소 수급안정 대책 추진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감동있는 지역사회서비스
우수사례 찾습니다



전라
남도 농업기술원
Jeonnam-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5

- ▶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0~9도, 최고기온 : 13~17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1~2mm)보다 적겠음

2. 농산물 관측정보 6

- ▶ 배추 생산 및 출하, 가격전망
- ▶ 무 생산 및 출하, 가격전망
- ▶ 양배추 생산 및 가격전망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9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3

- ▶ 올해 첫 수확한 순천 미인단감, 동남아 수출 길 올라
- ▶ 인도네시아로 순천 배 40톤 수출 길 올라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15

- ▶ 전남농업기술원, 연구개발 특허기술 산업체 기술이전
- ▶ 전남농업기술원, 수출 유망 화훼류 안정생산 재배 길잡이 발간
- ▶ 전남농업기술원,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병 예방은 매개충 방제부터!
- ▶ 시설재배, 공기 순환으로 난방비 줄이고 품질 높여
- ▶ 가을이 준 선물, 김장용 무 잘 고르려면?
- ▶ 홍잠으로 간암 적신호 막는다

6. 정책 동향 21

- ▶ 농촌관광 품질의 기준, 18년 농촌관광 등급 발표
- ▶ 농식품부, 선제적인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 추진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23

- ▶ 여수시, 2018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작
- ▶ 광양시, 매실청 공급으로 가축질병 예방 강화한다
- ▶ 화순군, 2019년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신청하세요
- ▶ 영광군, 옥당동부 수매 실시
- ▶ 장성군, 아로니아 상품화 지원 사격
- ▶ 진도군, 진도 울금산업 특구 지정... 총 사업비 171억 원 확보

8. 해외 농업정보 29

- ▶ 감을 이용한 식품개발과 미국 감 시장 전망
- ▶ 일본, 가공·외식산업용 채소 수요 증가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8. 11. 12. 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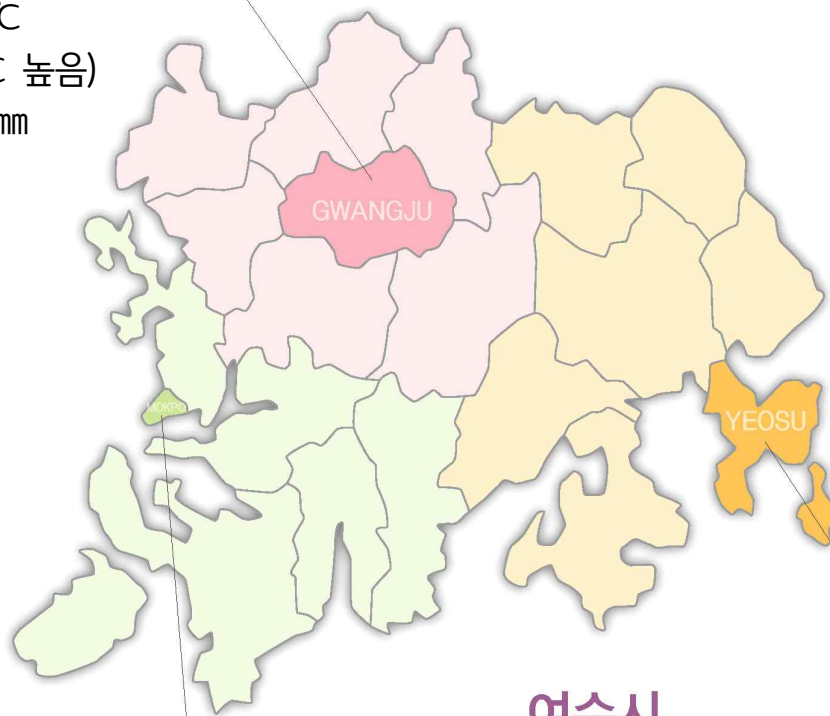
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33

- ▶ 감동있는 지역사회서비스 우수사례 찾습니다
- ▶ 청림한세상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9.0℃
(평년대비 1.2℃ 높음)
- 최고기온 : 14.3℃
(평년대비 0.9℃ 높음)
- 최저기온 : 4.6℃
(평년대비 0.7℃ 높음)
- 강 수 량 : 1.5mm



목포시

- 평균기온 : 10.1℃
(평년대비 1.6℃ 높음)
- 최고기온 : 15.0℃
(평년대비 -)
- 최저기온 : 6.3℃
(평년대비 0.8℃ 높음)
- 강 수 량 : 1.2mm

여수시

- 평균기온 : 10.8℃
(평년대비 0.7℃ 높음)
- 최고기온 : 14.6℃
(평년대비 -)
- 최저기온 : 7.6℃
(평년대비 0.8℃ 높음)
- 강 수 량 : 1.0mm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날씨누리



김장철 배추 출하량 작년보다 감소, 무는 증가할 전망



금년 김장철 가구 수요는 작년보다 감소

가구 소비자 배추 구매의향
(4인 가족 기준)

24.4포기

23.4포기



작년

금년

(소비자 조사 결과)

금년 김장 성수기

11월 21일 ~ 30일

12월 1일 ~ 10일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배추 생산 및 출하, 가격전망



생산전망

- 가을배추 생산량은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2%, 8% 감소한 133만 톤으로 예상된다.
- 겨울배추 생산량은 작년보다 7% 증가하나, 평년과는 비슷한 30만 9천 톤으로 전망된다.



출하전망 : 김장철(11~12월) 출하량 작년보다 감소

- 11월 가을배추 출하량은 출하면적 감소로 작년보다 4%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12월 가을배추 출하량은 출하면적 감소로 작년보다 1% 적겠으며, 겨울배추는 재배면적 감소에도 단수가 증가하여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12월 전체 출하량은 가을배추 출하량 감소로 작년보다 1%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전망 : 11월 가격 작년보다 소폭 높을 전망

- 11월 가락시장 상품 10kg(3포기)당 도매가격은 작년(4,930원) 및 평년(4,920원)보다 소폭 높은 5,500원 내외로 전망된다.
- 11월 상순 가격은 10월 하순 대비 약보합세가 예상되나, 중·하순 가격은 전남지역의 가을배추 출하지연과 김장수요 증가로 상순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12월 배추 도매가격은 작년(5,370원)과 비슷하나, 평년(4,530원)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 생산 및 출하, 가격전망



생산전망 : 가을무 생산량 작년보다 증가 전망

- 가을무 생산량은 작년보다 2% 증가하나, 평년보다는 2% 감소한 46만 6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출하전망 : 김장철(11~12월) 출하량 작년보다 증가

- 11월 가을무 출하량은 작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 11월에 월동무가 조기 출하될 경우 출하량은 예상보다 많아질 수 있다.
- 12월 가을 및 월동무 출하면적은 재배면적 증가로 작년보다 6% 많겠으며, 출하단수는 작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전망 : 김장철 가격 작년보다 낮을 전망

- 11월 가격은 작년(7,510원)과 비슷하나, 평년(8,300원)보다는 낮은 7,300원/20kg 내외로 전망된다.
- 12월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9,140원) 및 평년(8,430원)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배추 생산 및 가격전망



생산전망 : 가을양배추 생산량 작년보다 감소

- 가을양배추 생산량은 작년보다 11% 감소하나, 평년과는 비슷한 3만 톤으로 전망된다.



가격전망 : 11월 가격 작년보다 높으나, 12월은 낮을 전망

- 11월 가을양배추 출하량은 작년보다 15% 감소하여 도매가격은 작년(5,730원)보다 높으나, 전월보다는 낮은 7,000원/8kg 내외로 전망된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품목별 도소매 정보

식량작물

(2018. 11. 12. 기준 / 단위: 원)

쌀(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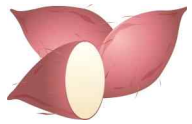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2)	1주일전 (11/5)	전년대비	
20kg	49,660	49,660	↑	29.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6,380	38,500	39,113	↑	27.0

콩(백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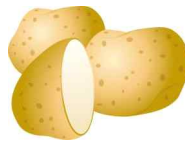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2)	1주일전 (11/5)	전년대비	
35kg	187,400	187,800	↑	13.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1,120	164,800	157,217	↑	19.2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2)	1주일전 (11/5)	전년대비	
10kg	34,800	34,800	↑	37.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4,080	25,275	22,162	↑	57.0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2)	1주일전 (11/5)	전년대비	
20kg	48,800	49,200	↑	15.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4,880	42,300	24,607	↑	98.3

채소류

배추(가을)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2)	1주일전 (11/5)	전년대비	
10kg	7,600	8,100	↑	24.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	6,100	5,220	↑	45.6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2)	1주일전 (11/5)	전년대비	
8kg	8,200	9,000	↑	39.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0,000	5,860	4,540	↑	80.6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2)	1주일전 (11/5)	전년대비	
100개	36,000	32,000	↓	8.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7,333	39,167	44,533	↓	19.2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2)	1주일전 (11/5)	전년대비	
20개	24,400	30,600	↑	79.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480	13,600	17,857	↑	36.6

채소류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2)	1주일전 (11/5)	전년대비
60kg	1,172,000	1,202,000	↓ 9.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34,000	1,292,500	783,333	↑ 49.6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2)	1주일전 (11/5)	전년대비
20kg	130,000	130,000	-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2,000	-	-	-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2)	1주일전 (11/5)	전년대비
20kg	63,600	63,600	↑ 89.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60,280	33,550	32,183	↑ 97.6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2)	1주일전 (11/5)	전년대비
5kg	31,400	32,600	↑ 62.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9,280	19,350	22,477	↑ 39.7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2)	1주일전 (11/5)	전년대비
10kg	34,800	33,400	↑ 41.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5,560	24,550	24,477	↑ 42.2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2)	1주일전 (11/5)	전년대비
10kg	39,200	39,400	↑ 4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9,360	41,700	45,927	↓ 14.6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2)	1주일전 (11/5)	전년대비
20kg	14,400	14,200	↓ 42.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4,640	25,100	21,860	↓ 34.1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2)	1주일전 (11/5)	전년대비
1kg	2,100	1,940	↑ 22.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504	1,715	1,603	↑ 31.0

수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2)	1주일전 (11/5)	전년대비
1개	14,600	14,800	↑ 52.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360	9,600	8,147	↑ 79.2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2)	1주일전 (11/5)	전년대비
5kg	21,800	22,800	↑ 5.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7,840	20,750	16,023	↑ 36.1

과일류

사과(후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2)	1주일전 (11/5)	전년대비
10kg	38,000	36,000	↑ 14.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	33,150	36,771	↑ 3.3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2)	1주일전 (11/5)	전년대비
15kg	41,800	38,400	↑ 25.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7,200	33,350	35,880	↑ 16.5

단감(단감)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2)	1주일전 (11/5)	전년대비
2kg	28,200	27,200	↑ 17.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	24,000	19,277	↑ 46.3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2)	1주일전 (11/5)	전년대비
100g	8,361	8,491	↑ 2.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432	8,154	7,502	↑ 11.5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2)	1주일전 (11/5)	전년대비
1kg	5,133	5,145	↓ 1.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162	5,184	5,677	↓ 9.6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2)	1주일전 (11/5)	전년대비
30kg	494,800	496,800	↓ 0.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8,400	498,000	512,533	↓ 3.5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2)	1주일전 (11/5)	전년대비
2kg	14,000	12,800	↑ 9.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560	12,750	12,503	↑ 12.0

새송이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2)	1주일전 (11/5)	전년대비
2kg	7,200	7,200	↓ 10.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160	8,050	8,177	↓ 11.9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2)	1주일전 (11/5)	전년대비
100g	1,882	1,834	↓ 3.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052	1,953	1,878	↑ 0.2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2)	1주일전 (11/5)	전년대비
30개	5,285	5,292	↓ 9.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397	5,821	5,803	↓ 8.9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2)	1주일전 (11/5)	전년대비	
1L	2,622	2,622	↑	4.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21	2,520	2,540	↑	3.2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8. 11. 12. 기준 / 단위: 원)

한우(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770	5,826	5,571	↓ 1.0	↑ 3.6
	거세	6,656	6,218	6,542	↑ 7.0	↑ 1.7

한우송아지(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145	3,173	2,969	↓ 0.9	↑ 5.9
	수	3,797	3,736	3,590	↑ 1.6	↑ 5.8

육우(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811	3,651	3,005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4.4	↑ 26.8

젖소송아지(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89	275	114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5.1	↑ 153.5

돼지(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23	318	381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6	↓ 15.2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424	1,557	1,629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8.5	↓ 12.6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994	1,023	1,332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2.8	↓ 25.4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433	2,433	2,666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0.0	↓ 8.7



올해 첫 수확한 순천 미인단감, 동남아 수출 길 올라

- 6일부터 단감(부유) 40톤, 싱가포르·말레이시아로 수출 활발 -

- 순천시(시장 허석) 수출 주력 과수인 『순천 미인단감』이 동남아 지역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수출을 시작했다.
- 지난 6일, 순천 APC(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승주 소재)에서 순천미인단감 공선회(36농가, 회장 황태구) 회원농가, 순천농협, 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해 첫 수확한 단감(부유) 40톤의 6천만 원 상당을 수출하기 위해 컨테이너 선적 작업을 실시했다.
- 과즙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은 순천 미인단감인 부유는 10월부터 수확하여, APC에서 균일하게 선별한 다음, 잔류농약 검사를 마치고 동남아 수출 길에 올랐다. 10~11월은 단감 생산이 어려운 동남아에서 우리 미인단감을 집중 수입하는 기간이다.
- 순천시는 작은 감을 선호하는 동남아 지역에는 당도 높고 크기가 작은 감을 선별해 수출하고 큰 감은 국내로 유통하는 등 유통 마케팅에서도 투트랙 전략으로 외화벌이와 내수시장 안정화 측면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계획이다.

*출처 : 순천시





인도네시아로 순천 배 40톤 수출 길 올라

- 전남농업기술원, 생산·맞춤형 컨설팅 지원 배 40톤 수출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이 생산·맞춤형 컨설팅 지원한 순천 배 40톤이 인도네시아 수출 길에 올랐다고 8일 밝혔다.
- 이번 수출은 농촌진흥청 수출지원과와 공동으로 농식품 수출 전문업체인 (주)JF업체를 발굴·알선하여 배 40톤을 인도네시아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 전남농업기술원은 수출확대를 위해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들의 국제박람회에 참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해외 수출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 순천지역 약 240호의 배 재배농가들은 고품질 배를 생산하여 국내 시장에서 인기를 선점하고 있으며, 이번 수출로 순천 배의 인지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하였다.
- 전남농업기술원 김성일 원장은 “이번 수출을 계기로 국내 수급안정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출 전략작목 발굴과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컨설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전남농업기술원, 연구개발 특허기술 산업체 기술이전

- 스마트팜 특허권, 장미 신품종 3종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전남도에서 연구 개발한 스마트팜 신기술과 장미 신품종을 지역 관련 산업체에 기술 이전했다고 밝혔다.
- 최근 스마트팜 기술 적용과 소비 트렌드 변화로 농업분야의 기술 융복합과 혁신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을 통한 기술 보급은 재배농가의 스마트팜 활용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국외로 유출되는 농업분야 로열티 절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에 기술 이전한 스마트팜 개발기술은 규모가 작고 영세한 재배 농가에서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할 때 문제 되고 있는 환경설정과 설치 후 AS 편의성을 향상시킨 기술로 장성군에 위치한 (유)린캠패스트에 3년간 기술이전을 실시하였다.
- 또한 화훼시장의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분홍색 아리미노, 보라색 파퍼미노, 적색 레드미노 등 3품종은 독특한 화형과 화색으로 지난 5월에 실시한 화훼 계통평가회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던 품종으로 함평 소재 국제화훼종묘에서 강진군을 비롯한 도내 장미 재배농가에 보급하게 된다.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전남농업기술원, 수출 유망 화훼류 안정생산 재배 길잡이 발간

- 절화수국·작약 재배기술 및 최신 국내·외 연구자료 수록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전남도의 수출 화훼류인 절화용 수국과 작약의 수출 확대와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기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농가보급용 책자를 발간했다.
- 수국과 작약은 최근 절화 시장의 꽃이 크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 변화와 품목 다양화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절화 재배와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물이다.
- 전남도는 수국과 작약의 주산지로 각각 국내 생산량의 30%와 70%가 생산되어 일본에 수출하고 있어, 고품질 연중 생산 희망농가와 신규재배 희망 농가에 최근 개발된 양액관리, 화색 및 개화조절 재배기술이 정리된 표준 메뉴얼 제공으로 재배농가의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
-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은 절화수국·작약 재배 기술의 국내·외 자료와 시험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식물의 특성, 주요 품종, 재배기술 및 수확 후 관리기술 등을 다루고 있으며 표와 그림을 삽입하여 농업인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손동모 소장은 “절화수국·작약 재배기술 매뉴얼이 현장 활용 지침서로서 활용되길 바란다면서 수출 유망 화훼류의 연중 고품질 생산과 새로운 품목의 발굴로 재배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전남농업기술원,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병 예방은 매개충 방제부터!

- 정식초기부터 매개충 예찰이 중요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시설원예작물에 바이러스병을 매개하는 해충을 작물 재배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방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고추, 토마토 등에 총채벌레가 매개하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가루이에 의한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TYLCV), 토마토퇴록바이러스(ToCV), 그리고 진딧물이 전염시키는 박과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CABYV) 등이 발생하고 있어 농가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식물바이러스병은 한번 발생되면 방제가 어려운 병으로 매개하는 해충에 의해 전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개충을 방제하여 작물에 전염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므로 농작물을 심는 초기부터 점착트랩을 하우스 출입문과 측창부위에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해충 밀도를 관찰하여 적기에 방제해야 한다.
-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총채벌레에 의한 바이러스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반사필름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총채벌레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시설하우스 주변에 반사필름을 설치한 결과 설치하지 않는 곳에 비해 96% 유입이 적었으며, 바이러스 발병률도 1.4%로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친환경농업연구소 김효정 연구사는 시설하우스 내 해충 방제뿐만 아니라 내·외부 주변 잡초에도 해충이 서식하므로 주기적으로 잡초를 없애주고 서로 다른 계통의 약제를 살포해서 바이러스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시설재배, 공기 순환으로 난방비 줄이고 품질 높여

- 농촌진흥청 개발 다목적 풍향 가변형 공기순환팬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시설원에 온실에서 실내 공기 순환을 위해 바람 방향을 목적에 따라 자동으로 바꿀 수 있는 『풍향 가변형 공기순환팬』을 개발했습니다.
- 우리나라 시설원에 온실의 77.6%는 온풍난방기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따뜻한 공기가 온실 위에 고이면서 내부 온도와 습도가 고르지 않게 되면 병해가 발생하고 에너지 소비도 늘게 됩니다.
- 최근 보급되고 있는 온실은 측면벽이 6.0m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급된 수평 방향 공기순환팬만 사용하다보면 온실의 위아래 온도차가 커지게 됩니다.
- 이번에 개발한 풍향 가변형 공기순환팬은 온실 안의 온도를 감지해 바람 방향이 자동으로 위, 중간, 아래로 바뀌도록 공기순환팬, 방향 변환 모터, 각도 제어장치, 스마트 컨트롤러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토마토, 파프리카, 나리 등을 재배하는 온실에서 실증한 결과, 여름철 고온기에는 내부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 천측창 환기보다 온실 내부 온도를 최대 6.4℃(44 → 37.6℃) 낮출 수 있었습니다.
- 겨울철 난방 시 수평 방향의 순환팬을 설치한 온실의 경우, 위아래 온도와 습도가 각각 1.3℃, 8.4% 차이를 보였으나 풍향 가변형 공기순환팬을 설치했더니 온도차는 0.6℃, 습도차는 2.7%였습니다.
- 온실 위쪽의 따뜻한 공기를 작물이 있는 아래쪽으로 보내 기존 온실에 비해 5.0 ~ 8.8%의 난방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 방울토마토의 경우, 초기 수확량이 8.5% 늘었고, 나리는 병해충이 줄어 3회 해오던 방제가 0회로 줄어들었습니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공기순환팬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으며, 2016년과 2017년 1개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출처 : 농촌진흥청



가을이 준 선물, 김장용 무 잘 고르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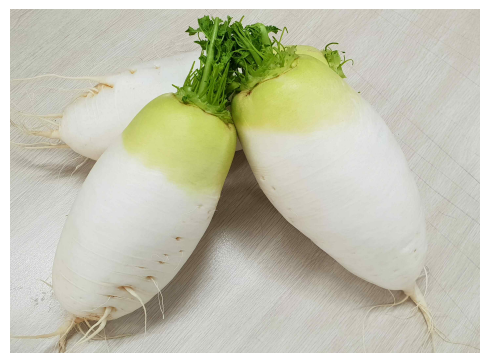
- 비타민C 많고 소화 돕는 건강 채소... 매끈하고 단단해야 좋아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김장철을 앞두고 영양 가득한 무의 기능 성분과 좋은 무 고르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 무에는 비타민C와 함께 포도당·과당·칼슘 같은 미네랄도 많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줍니다. 또한, 디아스타제와 아밀라아제가 소화를 돕기 때문에 과식으로 속이 더부룩할 때 먹으면 위가 편안해집니다.
- 항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무 생장 단계 중 수확기인 파종 후 60일 이후부터 가장 많이 생성됩니다.
- 김장용 무는 종자를 뿌린 지 70일이 지난 시점에 거두면 가장 맛있습니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김장 무를 심었다면 11월 중순께 수확하면 됩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김장 무가 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맛있는 김장 무는 보통 모양이 곧고 잔뿌리가 없으며 표면이 하얗고 매끄러운 것이 좋습니다. 들었을 때 묵직하고, 살짝 눌렀을 때 단단함이 느껴져야 합니다.
- 무의 윗부분에 나타나는 녹색이 전체 크기의 1/3 정도라면 잘 자라서 좋은 영양소가 듬뿍 담긴 무입니다.
- 무가 휘거나 두세 갈래로 쪼개진 것은 재배할 때 미숙 퇴비를 사용했거나 뿌리의 생장점이 손상된 것이므로 고르지 않습니다.
- 맛있는 알타리무(일명 총각무)는 모양이 예쁘고 잔뿌리가 많지 않아 표면이 깨끗하고, 뿌리와 앞에 병충해나 생리장해가 없고 색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잔뿌리 없이 표면이 깨끗하고 곧은 무



표면이 희고 매끄러우며 단단한 무



홍잠으로 간암 적신호 막는다

- 독성 물질 섭취로 인한 간암 발생과 증식, 전이 감소 효과 확인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차의과학대학교(총장 이훈규) 약학대학 김은희 교수 연구진과 함께 홍잠(弘蠶)이 독성 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간암 예방에 뛰어난 효과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 『홍잠』이란 완전히 자라 몸속에 견사단백질이 가득 찬 익은 누에(숙잠, 熟蠶)를 수증기로 쪄 동결 건조한 익힌 숙잠을 가리킵니다. 이는 지난해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명칭으로, 널리 이롭게 하는 누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시험쥐(랫트)를 대상으로 한 간암 억제 효과 실험에서 간암 유발 독성 물질인 DEN을 16주 동안 주 1회씩 투여하는 동시에 홍잠을 매일 1g(60kg 성인 기준 10g)씩 먹였습니다.
- 그 결과, DEN만 투여한 시험쥐의 간에서는 많은 악성 종양이 발생했지만, 홍잠을 동시에 먹인 쥐는 먹지 않은 쥐에 비해 악성 종양 수가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홍잠이 간염과 간경화 억제에도 효과적임을 확인했습니다.
- 간염과 관련해 대표적인 염증 물질인 TNF- α 가 62% 줄고, 간의 손상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는 인자인 CYP2E1이 97%, ALT가 41%, AST가 56%, 빌리루빈이 100%, LDH가 83% 줄었습니다.
- 간경화와 관련해서도 간의 섬유화 인자인 CoL1a1이 72%, Acta2가 87% 줄었고, 간경화 지표인 GST-pi가 40%, α -SMA가 60%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지난해 11월에 차의과학대학교와 공동으로 특허출원했습니다.
- 앞으로 항암보조식품으로서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작용 기전 구명과 인체적용시험 등 건강기능식품화를 위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소량 생산하던 홍잠을 국민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양잠단체 등이 힘을 모아 관련 기술을 농가에 적극 보급할 예정입니다.

*출처 : 농촌진흥청



농촌관광 품질의 기준, 18년 농촌관광 등급 발표

- 2018년도 농촌관광사업 등급 결정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와 등급결정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 이하 농어촌공사)는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557개소 및 관광농원 15개소에 대하여 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등 총 4개 부문별로 심사하고 등급(1~3등급, 등급 외)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심사결과, 4개 부문 모두 1등급을 받은 농촌체험휴양마을 44개소, 관광농원 2개소가 으뜸촌으로 선정되었다. 으뜸촌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농촌관광 자원과 연계한 상품개발 등의 정책지원에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 각 사업장별 등급결정 결과와 으뜸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관광 포털 『농촌여행의 모든 것, 웰촌(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한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자발적으로 서비스 품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농식품부 최봉순 농촌산업과장은 “농촌관광사업 등급제를 통해 농촌을 찾는 관광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명소를 발굴하여 농촌체험관광이 한층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또한 점점 다양해지고 높아지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는 새롭게 바뀐 농촌관광 등급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선제적인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채소의 안정적 공급, 김장비용 경감, 김장문화 확산 및 소비촉진 등을 골자로 하는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주요 김장채소의 수급상황을 보면, 배추·무·고추는 평년보다 생산량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김장철 물량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며, 마늘은 생산량이 증가해 수급이 원활할 전망이다.
- (배추·무) 생산량이 다소 감소할 전망이나 수급에는 문제는 없는 수준으로, 가격은 배추는 평년보다 소폭 높고, 무는 다소 낮을 전망
- (고추) 생산량은 감소하나, 가정 내 건고추 사전 구매와 정부 비축물량 등을 고려 시 물량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
- (마늘) 생산량 증가로 평년 수준에서 가격 안정세 예상
- (수급안정 대책) 안정적 물량 공급, 소비자 김장비용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과 함께, 김장문화 확산 등 추진
- 첫째로, 품목별 수급상황을 분석하여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김장채소류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배추)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 성수기 공급량 20% 확대
- (무) 단계적 수매비축 및 탄력적 방출, 계약재배 물량 분산 출하
- (고추) 비축물량 1.9천 톤을 활용, 매주 400톤 수준 공급
- (마늘) 농협 협동마케팅(23천 톤) 등을 활용한 공급 조절
- 둘째로, 할인판매·직거래 등을 확대하고, 알뜰구매 정보를 제공하여 가계 부담을 경감한다.
- 마지막으로, 김장문화 확산 및 국내산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김장캠페인·기부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펼친다.
- 김장채소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11.1. ~ 12. 20.)한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여수시, 2018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작

- 7 ~ 26일 21개 수매장서 40kg 2만 9220가마 수매 -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2018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시작했다.
- 7일 돌산읍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지역 21개 수매장에서 40kg 미곡 2만 9220가마를 매입할 계획이다.
- 매입품종은 미품과 신동진 등 2개다.
- 우선지급금 지급 없이 수매한 달의 말일에 포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지급하고 최종정산금을 연말 지급할 계획이다.
- 공공비축미곡 수매 시에는 매입품종을 준수하고 수분함량 13 ~ 15% 정도로 건조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 매입품종 외 미곡을 혼합할 경우 품종검정제 도입에 따라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 한편 여수시는 올해 전체 벼 재배면적 2176ha에서 40kg 기준 28만 2800여 가마가 수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 여수시





광양시, 매실청 공급으로 가축질병 예방 강화한다

- 지난해에 이어 사육농가에 올해 6,600L 보급, 청정지역 유지 기대 -

- 광양시는 가축면역력 증가와 성장속도에 도움 되는 매실청을 농가에 공급해 가축질병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 시는 올해는 전년보다 춥고 겨울철새 또한 많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내년도 2월 말까지 고병원성 AI·구제역 특별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방역 강화를 추진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 특히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가축들의 면역력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축산농가에 매실청을 공급하고 있다.
- 매실청을 공급받은 농가에서는 송아지 설사병과 소 전염성비기관염 등을 비롯한 각종 질병 발생이 억제돼 가축 폐사율이 줄어드는 큰 효과를 보고 있다.
- 시는 올해도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 돼지, 닭 등을 사육하는 농가 32가구를 대상으로 가축 급여용 매실액 총 6,600L를 공급하고 있다.
- 우선, 상반기에 3,300L를 농가에 보급했으며, 오는 11월 중 나머지 3,300L를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매실청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광양시는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구제역 상시접종과 우제류, 가금류 사육농가 전담공무원 지정 관리, 공동방제단을 통한 상시방역과 노약자, 가든형 식당 등 취약농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출처 : 광양시



화순군, 2019년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신청하세요

- 11월 5일 ~ 12월 4일,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 -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농림축산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토양의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의 정착을 위한 2019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지원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 신청자격으로는 유기질비료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2019년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토양개량제는 2019년 공급대상인 도암, 이서, 동복, 동면 농업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하면 되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마을이장, 공급희망농협, 작목반장 등을 통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할 수 있다.
-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 유기질비료는 2019년 농지소재지별 재배품목 및 희망공급업체명, 제품명, 신청수량, 희망공급농협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토양개량제는 2016년 신청된 내역을 확인 후 추가 및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 토양개량제는 효과가 3년을 지속함으로 과잉을 예방하기 위해 읍면별로 3년 1주기로 공급됨으로 2019년 공급대상 읍면만 신청가능하며, 2019년 10월경에 2020년부터 2022년 공급할 전체 읍면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 지원금액은 유기질비료·유박은 포당 2,200원(국비 1,100원, 군비 1,100원), 퇴비는 특등급 2,200원(국비 1,100원, 군비 1,100원), 1등급 2,000원(국비 1,000원, 군비 1,000원)을 정액지원하며, 추가 비용은 자부담으로 공급 희망농협에 납부하여야 한다.
- 공급희망일이 10월말이전으로 작성된 경우 10월말 이전에 공급받지 않으면 포기로 간주, 자동 선정 제외되어 다른 농가로 재배정됨으로 가을공급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공급희망일 작성 시 반드시 11월 이후로 작성 신청해야 한다.
- 토양개량제는 100% 보조로 무상공급 지원함으로 무단방치로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살포할 농가만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 화순군



영광군, 옥당동부 수매 실시

- 11월 12일 ~ 20일, 통합RPC 맛곡처리장에서 -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11월 12일 ~ 20일 영광농협 통합RPC 맛곡처리장에서 올해 생산된 옥당동부 수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군은 계약 재배 213농가로부터 금년 생산된 옥당동부 50여 톤을 수매할 예정이며, 수매는 12일 백수읍을 시작으로 20일까지 7일간 진행되고 읍면별 해당 일에 수매에 참여하면 된다.
- 수매에 참여하는 농가는 병든 동부를 제거하고 수분을 14%이하로 건조하여 통합RPC 맛곡처리장에서 정선 후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40kg 지퍼식 조곡용2호 포대에 담아 수매에 응하면 된다.
- 옥당동부 재배 지원사업은 양질의 동부를 생산 및 공급하여 생산 농가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가공업체는 모싣잎송편의 속 재료인 동부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지리적표시품을 생산하여 영광 모싣잎송편 명품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 한편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폭염 등 기상악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동부 재배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고생하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출처 : 영광군



장성군, 아로니아 상품화 지원 사격

- 12월까지 아로니아 동결건조분말 가공수수료 20% 지원 -

- 장성군은 10월부터 12월까지 아로니아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분말 가공에 소요되는 수수료 의 20%를 보조해주는 『아로니아 동결건조분말 가공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 베리류의 일종인 아로니아는 안토시아닌, 카테킨 등의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항암효과는 물론 항산화, 혈액순환촉진, 눈 건강 개선, 면역 강화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떫은맛이 강해 생과로 먹기보다는 동결건조한 분말 형태로 많이 소비되고 있다.
- 현재 장성군은 북이면, 북하면 지역을 중심으로 약 72농가 19ha 규모로 아로니아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에 장성군에서 판매된 아로니아는 총 200톤으로 이중 93%에 이르는 186톤의 아로니아가 동결건조분말로 판매됐다.
- 아로니아는 분말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크지만, 톤당 275만 원이 소요되는 가공비용이 농가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장성군은 베리류 육성책의 일환으로 지역농가와 협의를 통해 가공수수료의 20%를 일정범위 내에서 지원키로 하고 군비 1억 원을 들여 이달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 신청서는 매월 25일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되고, 농가는 아로니아 재배면적 1㎡당 생산량 기준 최대 2kg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담당(061 - 390 - 8435)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장성군





진도군, 진도 울금산업 특구 지정... 총 사업비 171억 원 확보

- 울금기반시설 확충, 6차산업화, 홍보·마케팅 강화 등 3개 특화사업 집중 추진 -

- 진도군이 진도 울금산업 특구로 지정 됐다.
- 진도군에서는 2019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울금기반시설 확충, 울금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화, 울금 6차산업화 및 홍보강화 등 3개 분야, 8개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83억 9천만 원, 도비 3억 1천만 원, 군비 77억 5천만 원, 민간자본 6억 5천만 원, 총 사업비 171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 전국 70%이상 고품질 울금이 재배·생산되는 최대 주산지로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해 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해 주민공청회·지방의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 이번 진도 울금산업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울금, 가공 상품 등에 울금산업 특구 생산품이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조식품 표시기준·영업시간·영업행위를 달리 적용하거나, 특허출원 시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 심사 등 특구법의 규제특례로 유통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

*출처 : 진도군





감을 이용한 식품개발과 미국 감 시장 전망

- 유제품 시장조사 기관인 Dairy Reporter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식품제조사인 WellKit Foods International사가 감(persimmon) 펄프를 주원료로 망고, 베리, 패션프룻, 키위 등 4가지 맛의 비유제(non-dairy) 과일 아이스크림인 My Goodness!아이스크림 브랜드를 출시하여, 세계 후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식물성 후식을 찾는 미국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끌어 감 소비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Dairy Reporter는 “현재까지 비유제 아이스크림 부문에서는 쿡, 아몬드, 코코넛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약간의 과일쥬스 셔벗이 틈새를 이루고 있었지만, My Goodness!상품은 높은 수준(60%)의 과일쥬스를 함유한다”고 함
- 감은 미국에서 대중적으로 소비되지는 않지만, 건강한 영양성분, 저열량, 저지방, 고식이섬유, 칼륨과 비타민 A,C 함유식품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서, 제빵류, 스낵, 샐러드, 퓨레 형태로 요리에 응용하는 법이 알려지기 시작함
- 아이스크림을 비롯한 다양한 식품에 응용하는 것은 감이 물러서 상업적으로 널리 유통되지 못하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감 소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에서의 감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Diospyros Kaki 품종과 Diospyros Virginiana 품종으로 Kaki품종은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이 원산지로 알려지면서, Japanese persimmon, Oriental persimmon으로 불리기도 함

- Virginiana 품종은 유통하기에 너무 무르기 때문에 Kaki종에 비해 상업적으로는 훨씬 적게, 미동부를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American persimmon, Common persimmon으로 일컬어지며, Kaki 품종보다 맛이 좋고, 비타민 C와 칼슘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 일반적으로 Virginiana 품종의 무른 감(홍시류)은 떫은(astringent)맛이 나므로 충분히 익었을 때 수확하며, 떫지 않은(non-astringent)맛의 Kaki종의 단단한 감(단감류)은 단단할 때나 물러진 후에 모두 먹을 수 있음
- 떫은 맛 품종은 Hachiya종이 대표적이며 떫지 않은 감은 Fuyu, Jiro가 대표적임. 아시안 감은 복숭아와 크기가 비슷하며, 미국 감은 자두처럼 작으며, 떫지 않은 단단한 감은 사과와 맛이 비슷하고 단맛이 덜한 것으로 알려짐
- 현재 미국에서의 신선 감 판매는 일반 슈퍼마켓보다는 농장이나 파머스 마켓 등에서 소규모로 직거래 거래되거나, 아시안 슈퍼마켓에서 소량 판매되는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홀푸드 마켓의 Instacart나 아마존 등을 통해 판매되기도 함
- 유통기한이 짧은 감의 활용도를 높이는 건조 기술은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hoshigaki로 불리고 있는데, 노동집약적인 기술이지만, 미국에서 가공 과일의 인기가 증가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음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 미국의 주요 감 품종 〉



Hachiya(홍시류)

Fuyu(단감류)



일본, 가공·외식산업용 채소 수요 증가

- 일본은 현재, 농촌을 떠나는 인구는 늘고 들어오는 사람이 적어 채소 총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맞벌이 가구와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가공 및 외식산업용 채소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17년 채소 총 생산량은 1,332만 5천 톤을 기록, 10년 전과 비교해 10% 감소했다.
- 한편, 샐러드에 빠지지 않는 양배추의 생산량은 10년 전보다 5% 증가한 142만 8천 톤을 기록했으며, 양상추도 7% 증가했다. 일본 농림성이 주요채소로 지정한 41개 품목 중 양배추와 양상추, 코마쓰나 등 6개 품목은 10년 사이에 생산량이 증가했다.
- 생산동향에 차이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생활스타일 변화를 꼽을 수 있다. 맞벌이가구 증가와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집에서 조리하는 생식용 소비가 줄어든 반면, 먹기 좋은 크기로 커트된 시판 채소샐러드의 수요가 높아졌다.
- 양배추는 2016년까지 9년간 생식용은 1% 감소했으나, 가공용은 2.5배 증가했다. 양상추도 생식용은 1% 감소했으나, 가공용은 3.4배 증가했다.
- 일본 채소 생산농가, JA 관련 회사도 포장을 뜯으면 세척하거나 자를 필요가 없는 간편성을 강조해 채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한국산 농산물의 냉동 및 간편 손질 채소로의 시장 공략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8. 11. 12.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 수출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하락 -

- 밀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1% 하락했다. 밀 선물가격은 수출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하락했다. 달러화의 강세 또한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 농림부는 2018년 밀 생산량을 6,930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 옥수수 선물은 전일 대비 1.0% 하락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기술적인 매도와 달러화 강세로 인해 하락했다. 밀 선물의 약세 또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 정부의 통계치 수정으로 옥수수 기말 재고량 전망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로 인해 미 농무부의 월간 수급 보고서의 옥수수 기말 재고량 확대를 상인들이 여전히 의식하고 있다.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9% 상승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미 현물 시장의 활성화와 미 - 중 무역회담이 낙관론이 대두 되면서 상승했다. 미국과 중국이 11월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 정상 회담을 통해 무역분쟁을 종식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감동있는 지역사회서비스 우수사례 찾습니다

- 전남도, 30일까지 수필동영상카드뉴스 3개 분야 공모 -

- 전라남도는 지역사회서비스의 감동과 스토리가 있는 우수사례를 찾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지역사회서비스 우수사례 공모는 전남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사회서비스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와, 서비스 이용으로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사례 등을 발굴해 전남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 공모 분야는 도민의 실제 이용사례가 담긴 수필, 서비스 현장의 활동 모습이 담긴 동영상, 여러 장의 사진을 이용해 사연을 담은 카드뉴스 세 가지다.
- 전라남도는 사회서비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10명을 선정,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 전라남도는 올해 지역사회서비스사업에 158억 원을 들여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서발달 지원, 맞춤형 운동 처방, 재가장애인 맞춤형 건강 증진 등 3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전남 지역사회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사회복지과(061 - 286 - 5742)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출처 : 전라남도



청렴한세상 - 애주가 청백리 손순효 선생일화



문신인 손순효는 성종의 총애를 받아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풍류를 즐기며



술을 너무 좋아해, 곧잘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중국에 보내는 국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하게 작성하자, 임금의 이를 높이 평가해 은잔을



하사하지만, 은잔이 작아 큰 잔으로 만들어 하루에 한잔씩 마셨다는 일화로



유명한데 이는 비록 술을 좋아하지만, 술에 지지않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공무를 임하는 태도에서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오늘날 공직자들이 일부러 술과 싸워 자신을 이기는 수련을 할 필요는 없지만 청렴하고 반듯한 직업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번쯤 선생의 일화를 통해 자신을 돌아볼 필요는 있을 듯하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VOL. 209

주간 전남농업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85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2 Fax. 061)335-4199

